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처럼 함께 싸울 때다”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영남권 노동자대회 열어 ... 서울·거제 6만 5천 노동자 노동계약 저지 결의

조선하청노동자를 살리고,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을 박살 내자는 구호가 거제 옥포를 휘감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7월 2일 거제에서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하라,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조합원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계약 저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2016년 박근혜를 끌어내린 노동자대회 이후 최대 규모 투쟁이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은 조선하청지회의 교섭에 응하고, 삭감한 임금을 돌려놓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임금 떼먹기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일갈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에



6만 노동자, 거제에 5천 노동자가 한목소리로 임금인상, 구조조정 중단, 공공성 강화를 외쳤다”라면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억하고 있다. 1987년 투쟁처럼 함께 싸워 대우조

선하청노동자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옥포의 투쟁 전선을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박살 투쟁 전선으로 확대해서, 노동권이 살아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라고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끝장 투쟁을 엄호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해 7월 8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남문에서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 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 요구하며 6월 2일 파업을 시작했다. 6월 22일 조합원 일곱 명이 옥포조선소 1 도크 선박으로 거점을 옮기고 끝장 투쟁에 나섰다.

유취안 부지회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용접으로 1㎡의 케이지를 만들고 시너 통을 들고 들어가 용접으로 문을 잠갔다.

# “7월 총파업, 노동자 목숨 지키는 투쟁이다”

총파업 조직화 2차 현장순회 첫째 주 일정 마무리 ...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만나

금속노조가 7월 1일 ‘노동중심 산업 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 2차 현장순회’ 첫 번째 주 마지막 일정으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7월 총파업 총력투쟁 참여와 조직화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금속노조 임원, 사무처와 현대중공업지부, 지부 사내하청지회(서진이엔지) 간부, 조합원들이 함께 출근 선전전을 벌이며, 재벌 중심 산업전환 흐름 속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정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선전전에서 “윤석열 정권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산업전환과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라며 “재벌 주도로 실행하는 산업 재편을 금속노조가 올해 20만

명으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조업 430만 노동자는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특히 조선소 등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금속노조가 올해 총파업을 결의한 원인 중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노동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정병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은 현장 발언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700여 명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 잃은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다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라면서 “세상이 변해도 한국의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7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변화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에 노동자의 생명, 인권, 안전을 걸고 모두 참여해야 한다”라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도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불법과 탈법의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출근 선전전에 이어 지부 상임 집행위원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조선산업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금속노조는 거제 조선후청 노동자들의 총파업 승리를 위해 7월 2일 총집결하고, 7월 8일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을 벌인다. 거제로 달려와 달라”라고 당부했다.

## 금속노조 7월 1일 쟁의 조정신청

7월 4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 7월 18일 주 6시간 주·야 총파업

금속노조가 7월 1일 2022년 중앙교섭 등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대각선교섭 등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행한다.

노조 정책실은 7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 등 192개 사업장 41,544명이 일괄 조정신청을 했고, 6월 23일 조정신청을 접수한 현대자동차 지부 등 조기 조정신청 단위를 포함하면 203개 사업장 91,762명이 쟁의 조정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6월 21일 10차 중앙교섭

에서 “사용자협의회가 10차 교섭까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 요구안의 핵심 내용에 관해 안을 제시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더는 평화적인 교섭이 의미가 없다.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라고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6월 27일 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총파업 전술을 확정했다. 7월 18일 주 하루 6시간(주·야) 이상 총파업에 돌입하고, 쟁의권 미확보 사업장은 총회와 교육 등을 활용해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했다. 추가 파업 전술은 중앙쟁대위가 결정한다.

노조는 7월 20일 서울과 전국 아홉 곳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위력적인 총파업대회를 벌인다.